

2016 특수교육 콘텐츠 공모전

아이디어 결과보고서

제목	한국어 음운규칙 읽기평가
-----------	---------------

성 명	조은, 장인비, 원지수, 김지윤, 강수원
소 속	조선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

<p>제목</p>	<p>한국어 음운규칙 읽기평가</p>
<p>요약</p>	<p>1. 목적 특정 음운규칙에 대한 읽기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검사대상자의 읽기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음운규칙 별 읽기 수행 분석을 통하여 치료 진행 시 목표 선정과 치료 효과를 점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p> <p>2. 주요내용 검사는 음운규칙별 단문 및 복문의 문장과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음운규칙(연음화, 경음화, 격음화, 비음화, ㅇ탈락, 구개음화, 설측음화)에 따라 문장과 문단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각 문장과 문단은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난이도와 빈도를 조절하였다. 문장은 7개, 규칙별로 4개씩 총 28개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문단 구성은 목표 어휘가 저빈도/고빈도 어휘 각각 3개씩이 포함된 3~4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음운규칙 별 문단은 3~4문장으로 목표 음운규칙을 10개 전후로 포함시켰으며, 모든 문단은 대상자에게 친숙하도록 이야기 글로 구성되어 있다.</p> <p>3.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 및 문단 내에서 음운변동을 평가할 수 있다. - 음운규칙에 대한 심화평가로 사용하여 치료 목표를 선정할 수 있다.
<p>첨부자료</p>	<p>[첨부1] 한국어 음운규칙 읽기평가 지침서 [첨부2] 한국어 음운규칙 읽기평가 기록지_고학년 [첨부3] 한국어 음운규칙 읽기평가 기록지_저학년 [첨부4] 고학년용 소책자 [첨부5] 저학년용 소책자</p>

1. 추진배경

읽기는 학령기 아동들이 학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능력이 된다. 이때 저학년에서 해독을 중심으로 발달하며, 학년이 점차 올라갈수록 해독능력과 언어능력을 기반으로 읽기이해가 발달하게 된다. 이때 다양한 언어능력들은 성공적인 읽기를 위해 해독과 함께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후 읽기가 습득되고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상호관계를 가지며 읽기능력이 다시 언어능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읽기 발달을 생후부터 성숙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0~5단계로 가정하였을 때, 0단계는 읽기 전 단계로 태어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시기이다. 이때 아동은 일정한 문자 체계를 가진 문화권에서 생활하면서 문자, 단어, 그리고 책들에 관한 일련의 지식들을 축적한다. 또한 언어의 다양한 측면(문장과 단어)을 이해하게 되며 단어의 특성에 관한 통찰도 얻는다. 1단계는 초기 읽기 및 문자해독 단계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의 시기이며 문자 체계를 습득하여 각 문자에 대응하는 음성단어를 연결하고 읽기를 시작하게 된다. 2단계는 유창성 단계로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시기이며 이때의 읽기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1단계에서 습득한 바를 다짐으로써 읽기 유창성을 익히게 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지식, 정보, 생각과 경험 등의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읽기를 시작하게 되는 단계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의 시기이다. 4단계는 읽기에 있어 다양한 관점이 생겨나고 이를 다룸으로써 개념과 관점을 습득하게 되는 시기로 중등학교 이후의 시기이다. 5단계는 18세 이후의 시기로 고도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지식을 구성하게 되는 가장 성숙한 단계이다(Chall, 1983).

아동의 읽기 능력은 학령기 학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령기에 들어가면서 읽기는 학습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대부분의 교과과정에서 수반되어야 하는 능력으로, 학습의 도구로 사용된다. 또한 학년이 증가할수록 읽기의 비중은 높아지며, 그에 따라 읽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업에 있어서도 격차가 커지게 된다(김우리·고은영, 2012).

읽기가 크게 해독과 읽기 이해로 나누어질 때, 특히 해독이 읽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이후 글을 유창하게 읽고 이해하기 위해 수반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능력이 된다(김우리·고은영, 2012).

이러한 문자 해독의 발달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게 되면, 1단계는 기호 책략 단계로 아동은 친숙한 단어만 전체로서 인식하여 읽을 수 있고 문자를 소리로 전환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2단계는 자모 책략 단계로 아동은 단어를 자소와 음소의 대응 규칙에 따라 읽게 된다. 3단계는 철자 책략 단계로 아동은 단어를 개별 자모로 분석하거나 음운적 전환이 없이 전체적으로 단어를 인식한다. 아동은 익숙한 읽기자료로서 자동적 읽기가 가능하다(Ehri, 1991).

해독을 할 때, 아동은 개인 어휘집에 있는 단어의 음운규칙 정보를 활용하여 읽을 수 있다. 이때 어휘집에 저장된 어휘는 친숙성이 높아 음운규칙의 적용이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단어 의미가 유무성에 따라 음운규칙간의 적용도에 차이가 보이고 있다. 이는 음운규칙들이 그 적용의 용의성에 따라 음운규칙 수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유진, 2008). 한글의 음운규칙을 정상적으로 습득한 아동은 음운변동이 있는 단어들의 재인 능력도 자연스럽게 발달한다. 음운규칙이 적용된 단어들은 보통 자소-음소 불일치형 단어이다. 이때 음운규칙들을 적용하여 읽지 못할 경우 발음과 유창성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 또한 읽은 것에 대한 이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신혜정·박희정, 2015).

이때 음운규칙은 소리와 소리가 연이어 나면서 서로에게 규칙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말하며, 다양한 규칙들이 있다. 먼저 경음화란 종성 'ㄱ, ㄷ, ㅂ, ㅅ, ㅈ' 뒤의 초성 'ㄱ, ㄷ, ㅂ, ㅅ, ㅈ' 이 된소리가 되는 현상으로 예를 들어 작전(작쩨), 입구(입꾸), 독서(독써)등이 있다. 비음화란 폐쇄음 'ㄱ, ㄷ, ㅂ'이 비음 'ㅇ, ㄴ'앞에서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예를 들어 떡만(땡만), 단

는(단는)등이 있다. 구개음화란 ‘ㄷ, ㅌ’이 모음 ‘ㅣ’와 결합하여 ‘ㅊ, ㅌ’로 바뀌는 현상으로 예를 들어 같이(가치), 묻히다(무치다)등이 있다. 연음화란 종성에 이웃하는 모음과 만나면 연음이 되는 현상으로 예를 들어 울어(우러)가 있다. 설측음화란 ‘ㄹ’에 이웃하는 ‘ㄴ’이 ‘ㄹ’로 바뀌는 현상으로 예를 들어 칼날(칼랄), 광한루(광할루)등이 있다. 격음화란 ‘ㅎ’에 인접한 ‘ㄱ, ㄷ, ㅂ, ㅈ’이 ‘ㅋ, ㅌ, ㅍ, ㅊ’로 바뀌는 현상으로 예를 들어 놓다(노타), 닭지(달치)등이 있다. ㅎ탈락이란 음절끝소리 ‘ㅎ’이 모음과 만나면 ‘ㅎ’이 탈락하는 현상으로 낯은(나은), 좋은(조은)등이 있다.

학령기에서 음운규칙의 발달로는 경음화의 경우 학령전기부터 습득되어 있으며, 비음화와 함께 저학년부턴 적절한 적응능력을 보인다. ㅎ탈락과 격음화의 경우 저학년에서는 어려우나 학년이 증가하면서 습득되는 모습을 보이나, 구개음화와 설측음화의 경우 학년이 증가하여도 여전히 높은 오류율을 보이며 완전히 습득되지 않는 음운규칙으로 나타났다(김미배·배소영, 2011; 임유진·김영태, 2008).

Chall(1983)에 따르면 초등 저학년까지 읽기 자체를 습득하는 해독능력이 발달하는 때이며 이후 학습을 위한 읽기 이해단계로 발달한다. 아동이 해독 능력을 발달시키는 동안 언어적 이해가 함께 발달하게 되며, 이후 읽기이해단계에 이르러 이러한 능력을 통합하여 읽은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또 초등 저학년과 초등 중학년에 음운해독력이 발달하는 시기로 아동이 음운해독력을 바탕으로 읽기 이해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읽기 부진 아동은 이러한 능력을 통하여 문장의 구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기, 단어를 맥락에 맞게 적절하게 이해하기, 이야기를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질문에 답하기, 읽은 이야기 글의 구성 요소를 다시 말하기 등 읽기와 관련한 다양한 능력에 있어서 일반아동에 비해 어려움을 느낀다(김애화 외, 2008). 글을 정확하고 빠르게 읽는 읽기 유창성과 음운해독력 또한 학년이 올라가도 일반아동과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문단글을 자동으로 읽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음운해독과 읽기유창성이 읽기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읽기부진 아동과 읽기유창성의 문제가 읽기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김애화 외, 2010; 정부자, 2009; Landerl & Wimmer, 2008). 따라서 읽기 부진 아동이 초등저학년에 읽기발달에 가장 먼저 필요한 음운해독력을 발달시켜 글을 자동적으로 읽어 이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김미배 외, 2012).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읽기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여야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읽기 검사 도구에서 우리는 음운규칙을 낱말수준에서 검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낱말수준과 문맥수준에서 음운규칙의 적용에 대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문맥상에서 음운규칙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2. 목적

초등학교 1-6학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특정 음운규칙에 대한 읽기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검사대상자의 읽기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음운규칙 별 읽기 수행 분석을 통하여 치료 진행 시 목표 선정과 치료 효과를 점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3. 활용방법

본 검사는 음운규칙의 문장과 문단별 검사지로 구성되어 있어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검사지를 선택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문장 검사 시 난이도가 더 쉬운 고빈도 어휘가 포함된 문장을 먼저 제시하여 검사하도록 한다.

본 검사의 검사지에는 모든 지시문이 존칭으로 되어 있지만, 대상자의 반응이나 상황에 따라 용

통성 있게 바꾸어 제시할 수 있다(예: '읽어볼까?', '읽어볼래?', '읽어봐', '읽어줘' 등).

능숙한 검사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검사방법을 연습해본 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자가 틀리게 반응했을 경우라도 계속 격려해준다.

1) 검사방법 설명

검사 시작 전 검사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 "이제부터 내가 문장과 문단글을 보여줄게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잘 읽어보세요."

2) 검사 시 준비물

본 검사를 위해서는 검사지침서, 검사지가 필요하다.

(가) 검사지침서: 본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나) 검사지: 읽기 검사지는 학년별로 고빈도 낱말과 저빈도 낱말로 구성된 문장과 문단으로 제시되어 있다.

(다) 기록지 : 음운규칙 별 대상자의 반응을 기록하도록 되어있고 대상자의 기초정보 및 검사일, 검사결과 등을 계산하여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3) 채점 방법

각 문항은 1점씩 배점하며 대상자의 반응을 반응란에 기록한다. 고빈도와 저빈도 각각의 정답률을 계산하여 기록한다. 음운규칙별 검사지에 제시되어있는 목표반응을 제외한 오반응은 점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임상적 인상란에 기록하도록 한다.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수정할 경우 반응란에 'SC'(Self Correction)라 기록하고 정반응으로 처리한다.

4)검사결과 해석

검사 실시 후 아동에게서 나타난 높은 오류율을 보이는 음운규칙을 파악하여 읽기 중재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다. 또한, 본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발달 단계를 참고하여 아동의 연령에 해당하는 발달 단계 음운규칙에 대해 오류를 보이거나, 발달 단계이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음운규칙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음운규칙의 문장과 문단에 같은 목표어휘가 있을 경우, 문장과 문단에서 읽기 능력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읽기 수준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여 중재 수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4. 내용

1) 제목

한국어 음운규칙 읽기평가

2) 대상자

검사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 학령기 아동이며 공식검사를 통한 해독 검사 후, 심화평가가 필요한 음운규칙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또한 음운규칙 발달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그 외 읽기부진, 읽기장애, 단순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학습장애 등으로 인해 음운규칙의 발달에 지체가 예상되는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3) 세부내용

검사는 음운규칙별 단문 및 복문의 문장과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음운규칙(연음화, 경음화, 격음화, 비음화, ㅇ탈락, 구개음화, 설측음화)에 따라 문장과 문단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각 문장과 문단은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난이도와 빈도를 조절하였다. 문장은 7개 규칙별로 4개씩 총 28개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문단 구성은 목표 어휘가 저빈도/고빈도 어휘 각각 3개씩이 포함된 3~4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있다. ㅇ탈락의 경우 학년별 저빈도와 고빈도 어휘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각 음운규칙 특성상 어휘의 수가 제한되어 각 2개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개음화와 설측음화의 경우 음운규칙 습득이 고학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학을 위하여 하나의 문단을 만들었으며, 읽기 발달 단계가 정형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의 발달 특성에 따라 저학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의 규칙은 저학년, 고학년에 나누어 각 2개씩 총 11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음운규칙 별 문장에서 중복되는 음운규칙(예. 구개음화 규칙에서 연음규칙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은 초기에 습득되는 음운규칙만을 포함하였다. 음운규칙 별 문단은 3~4문장으로 목표 음운규칙을 10개 전후로 포함시켰으며, 모든 문단은 대상자에게 친숙하도록 이야기 글로 구성되어 있다.

4) 고려사항

- 검사기록지가 고빈도 어휘는 빨간색, 저빈도 어휘는 파란색으로 표시 해놓았으니 유의해야한다.
- 대상자가 검사를 실시 할 때, 음운규칙에 따른 음운규칙 명을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 문단의 경우, 대상자가 한 줄을 생략하여 읽을 수 있으니, 검사자가 이 점에 유의하여 대상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기록하여야 한다.

5. 기대효과

- 단어에서 나타나지 않은 음운규칙(예: 있었습니다)을 문장과 문단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음운규칙에 대한 심화평가로 사용하여 치료 목표를 선정할 수 있다.

6. 참고자료

1. 김미배·배소영 (2011). 낱말읽기에서의 초등학생 음운해독력 발달. 『언어청각장애연구』, 16(2), 143-153
2. 김미배·배소영 (2012). 초등 읽기부진 아동의 읽기특성. 『언어청각장애연구』, 17, 565-581
3. 김우리·고은영 (2012). 국내 학습장애 읽기이해 중재의 효과분석. 『학습장애연구』, 9(3), 179-203.
4. 신혜정, 박희정 (2015).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음절, 음소 및 음운규칙 출현빈도 분석. 『언어치료연구』, 24(4), 125-133.
5. 임유진·김영태 (2008). 단어 읽기 과제에서 초등 2학년과 5학년 아동의 음운규칙 적용능력의 비교. 『언어청각 장애연구』, 13(4), 635-653.
6. 김애화·황민아 (2008). 초등학교 고학년의 읽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읽기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13(1), 1-25
7. Mibae kim & Soyeong Pae (2013). *Listening and Reading Comprehension Skills of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with Reading Difficulties*.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18(4), 392-401
8. Catts, H. W., & Kamhi, A. G. (2005). *Language and reading disabilities* (2nd ed.).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9. Chall, J.(1983). *Stage of reading development*. New York, NY: McGraw-Hill.
10. Vellutino, F. R., Tunmer, W. E., Jaccard, J. J., & Chen, R.(2007) Components of reading ability: Multivariate evidence for a convergent skill model of reading development. *Scientific Studies of Reading*, 3-32